

##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수형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희경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이대식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국 문 요 약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정부와 교육훈련 기관들은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성과와 창업만족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의 주요요소와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가역량은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2-30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성과와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역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모두 완전매개로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창업성과와 창업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역량은 창업성과에 대하여는 완전매개, 창업만족에 대하여는 부분매개를 나타내었다. 창의역량의 경우 창업성과에 대하여는 직접효과만 존재하였고 창업만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부가설 8개 중 7개는 지지되었고 1개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청년창업, 창업가역량,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 창업성과, 창업성과

## 1. 서론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실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초래한 사회의 변화는 고용노동시장, 즉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노동이 기계화·자동화 또는 디지털화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김동규 외, 2017).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촉진됨에 따라 직업구조가 변화하여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비용이 매

우 낮아지고 근로자의 비대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외부자원(생산시설,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웃소싱, 프로젝트 조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창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창업에 있어 청년, 여성, 장애인, 지역 등 특정 계층의 불리성(disadvantage)이 큰 만큼 정부는 이들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는 특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세경·곽규태, 2017).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청년창업을 연구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창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분야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mpire@pusan.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rachelkang@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aslee@pusan.ac.kr

· 투고일: 2020-09-10 · 수정일: 2020-10-14 · 게재확정일: 2020-10-21

(김향덕·이철규, 2018a). 청년창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장년층의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창업가의 특성(창업동기, 기회인식, 창업역량, 리더십 등)과 창업생태계의 역할 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송은실·이성근, 2012; 박재환 외, 2012; 방중혁 외, 2014; 김형철 외, 2015; 유봉호·김수현, 2015; 이지안·안영식, 2018; 김향덕·이철규, 2018b; 안기돈·이택구, 2018; 이창구·서영욱, 2018; 선량·허철무, 2019).

이러한 연구동향에서 보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공 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매개 및 조절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창업사전준비(김형철 외, 2015),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김경은·주병철, 2018), 글로벌 마인드셋(김량형·김응규, 2019) 등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고, 기업가정신(유봉호·김수현, 2015),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선량·허철무, 2019) 등의 매개효과 역시 연구를 통해 실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의 효과를 통해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창업성과를 목표로 하는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가리키는데(Chen et al., 1998), 창업가정신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창업연구에서 핵심 심리적 개념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Miao et al., 2017). 최근의 국내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양준환, 2014; 진주형·박병진, 2014; 김경은·주병철, 2018; 김명숙·박태경, 2019; 김진홍·김영수, 2019).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할 것인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정리한 후, 실증연구를 통해 주요 연구변수 간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가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청년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창업가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유용한 무형의 자원이다(Sozuer et al., 2017; Albiol-Sanchez, 2016; Tehseen & Ramayah, 2015; 이해영·김진수, 2019). 창업가적 역량은 기업의 안정적인 탄생과 생존, 성장을 가져오는 기술, 자기이미지, 사회적 역할, 지식, 동기, 특성 등을 포함한다(Mitchelmore & Rowley, 2013; Ahmad et al., 2010) Mitchelmore & Rowley(2010)는 창업가적 역량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결합한 개념이며 개인의 배경(background)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특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창업가역량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소로 분류된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가 가져야 하는 역량으로 기업가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고 Ahmad et al.(2010)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기회역량, 관계역량, 학습역량, 개인적 역량, 그리고 윤리적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창업가역량을 다루는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에 관한 메타연구에서는 15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회인식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전략역량, 관계역량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이해영·김진수, 2019), 창업역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에서는 총 13가지로 분류하였다(김은성·리상섭, 2020).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역량과 관리역량, 기술 역량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며 여기에 창의역량, 사회적 역량, 마케팅 역량, 전략적 역량 등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윤종록·김형철, 2009; 김형철 외, 2015; 이상화·하규수, 2015; 안태욱·강태원, 2017; 안태욱 외, 2019; 김진한 외, 2020).

이러한 창업가적 역량은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가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iol-Sanchez, 2016; Minai et al., 2014; 이설빈, 2017). 창업가적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메타연구(이해영·김진수, 2019)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성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역량은 전략적 역량이며, 다음으로 기회인식역량, 관리역량, 관계역량의 순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가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창업만족과 창업성공이라는 주관적 창업성과 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가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로 알려져 있다(Tehseen & Ramayah, 2015; Mitchelmore & Rowley, 2010). 청년창업가의 경우 조직의 재무적 성과 등 정량적 지표로 성과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달성, 만족도 등의 주관적 성과로 결과를 측정하여 창업가역량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봉호·김수현(2015)은 청년창업자의 셀프리더십, 전타식(2019)은 청년창업자의 감성지능, 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 김수현·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가 각각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심용호 외(2015)는 창업가의 특성, 창업전략, 조직특성, 창업환경과 창업만족의 관계, 유재은·최중

우(2019)는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은 창업성과와 유의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이후의 본 연구의 핵심가설인 매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기본적 연구배경으로 볼 수 있다.

## 2.2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신념을 가리킨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인식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 맥락, 관찰, 행동의 모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andura, 1997,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들에 따른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난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행동과 신념을 연구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창업가의 경력선택과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자기효능감은 실질적인 창업의 도전과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청년창업가는 젊기 때문에 가지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보다 구체적인 성취욕이자 지속적인 행동과 관련된다(선량·허철무, 2019). 이는 청년창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창업의 과정에서 청년창업가들은 도전의 시간만큼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기간의 난관과 도전을 기회로 인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효능감이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다소 위험수준이 높은 사업아이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도전과 기회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 특성인 창업자기효능감은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성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창업자기효능감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창업자기효능감의 선행 및 결과변수와 측정도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Newman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선행변수로 문화·제도적 환경, 기업의 특징, 교육과 훈련, 업무경험(Farashah, 2015; Hockerts, 2017), 롤 모델(멘토)(BarNir et al., 2011), 개인특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창업자기효능감의 결과변수로는 창업의도(Austin & Nauta, 2016; Bagheri & Pihie, 2014), 창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 심리상태(Uygun &

Kim, 2016; Cardon & Kirk, 2015; Dalborg & Wincent, 2015)가 발생하며 그리고 창업가적 행동(Cassar & Friedman, 2009; Trevelyan, 2011)으로 이어짐을 지적한다. 또한 창업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창업성과, 주관적인 성과 인식, 성장, 혁신(Hallak et al., 2011; Hallak et al., 2012; Hallak et al., 2015; McGee & Peterson, 2019) 등의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관련 논문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독립, 매개,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동일한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 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표를 보면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특성이나 교육, 지원제도, 조직적 요인 등과 창업의도(의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Newm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창업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와 동일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대상
김미숙·김영국(2012)	개인요인, 교육, 조직요인	창업의도	대학생
양준현(2014)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의도	대학생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	창업의도	청년
양준현(2015)	관계적지원	기업가적동기	대학생
정대용·채연희(2016)	성격특성, 셀프리더십	창업의도	대학생
김상표 외(2017)	창업교육	시간관	대학생
이정란·장규순(2018)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지	대학생
유승욱(2018)	자기관	창업의도	대학생
이광수·이용진(2018)	성취동기	창업의향	대학생
선량·허철무(2019)	창업동기	창업기회역량	예비청년 창업가
권인수 외(2019)	주관적 규범	창업의도	대학생

이러한 연구흐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 중 하나인 창업가역량과 결과변수인 주관적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주로 창업의도와 의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Newm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창업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창업성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국내 연구의 흐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가설이라 할 수 있다. 가설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창업성과의 두 가지인 창업성과와 창업만족으로 구분하여 가설 1과 2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창업자기효능감은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1-1: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가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1-2: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술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1-3: 창업자기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1-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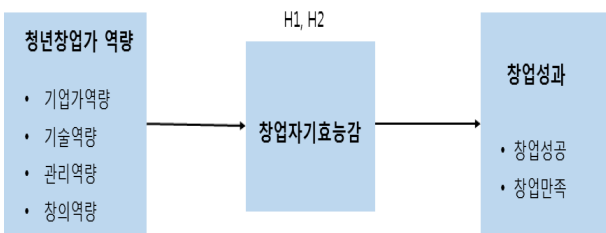
**가설 2: 창업자기효능감은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1: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가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2: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술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3: 창업자기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역시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는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여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은 김형철 외(2015)의 연구에서 제시

한 것처럼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은 Chandler & Hanks(1994)의 정의와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기업가역량이란 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역량을 의미하며 사업성공에 대한 열정,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인식하는 능력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술적 역량은 자기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기법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의미하며 기술인력확보능력, 기술혁신능력,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관리역량은 자원의 획득과 관리의 역량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역량, 감독과 설득으로 지도하는 역량,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조정시키는 역량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의역량은 Runco(2004), 김형철 외(2015)의 연구를 근거로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생각해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생각이 참신한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을 의미한다. Wilson et al.(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으며 창업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등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두 변수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공은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고(서명길, 2018) 창업만족은 창업자체에 대한 만족, 사회의 기여, 지속성 등으로 측정하였다(정대용 외, 2012).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부산경남 지역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인 청년창업가는 연령을 20-40세로 한정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는데, 우선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청년창업가들과 접촉하였으며 일부는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하였다. 조사방법은, 대학을 통한 설문조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업체는 온라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한 창업은 제외한 독립사업체로 창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업종은 다양하게 수집하였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IT,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불성실 응답 부수 등을 제거한 후 187부를 최종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고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가 0.5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과 변인들 간의 상관이 0인지 검증하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량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값을 통해 0.7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상의

변수 값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위한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직접, 간접효과의 회귀계수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간접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적용된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모델은 model 4.0을 적용하였다.

## IV. 실증 분석 결과

### 4.1 표본의 특성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표본의 특성 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직장경험이다. 전체 187부의 표본 중 남성과 여성은 약 6: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24세는 2.7%, 25-29세는 21.9%로 20대는 총 24.6%를 차지한다. 나머지 약 75%는 30대인데 그 중 30-34세는 86명으로 45.5%, 34-40세까지는 56명으로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를 보면 학사가 6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4.6%로 많으며 나머지는 석사 7.5%, 고졸 4.3%, 박사 2.1%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 경제학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9.6%, 7.5%로 나타났다. 그 외 일부 의치약학계열과 자연과학이 있으며 약 46%는 기타 전공으로 집계되었다. 직장경험의 여부는 경험있음이 86%, 없음이 14%로 집계되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자	109	58.3
	여자	78	41.7
연령	20-24	5	2.7
	25-29	41	21.9
	30-34	85	45.5
	35-40미만	56	29.9
학력	고졸	8	4.3
	전문대졸	46	24.6
	학사	115	61.5
	석사	14	7.5
전공	박사	4	2.1
	경영,경제학	61	32.6
	공학	14	7.5
	자연과학	2	1.1
	예,체능계열	18	9.6
직장경험	의,치약학계열	6	3.2
	기타	86	46.0
	있다	161	86.1
	없다	26	13.9
합계		187	100.0

### 4.2 타당성 및 신뢰성

조사에서 사용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에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경우만을 유의한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측정항목이 제외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업가역량 5항목, 기술역량 5항목, 관리역량 6항목, 창의역량 7항목, 자기효능감은 5항목,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은 각각 2항목과 4항목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인 KMO값이 0.876으로 판단기준인 0.5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를 보면, 카이제곱 값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항목을 선정한 후,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에서 기업가역량 0.831, 기술역량 0.731, 관리역량 0.873, 창의역량 0.855, 창업자기효능감 0.817, 창업성공 0.772, 창업만족 0.815로 0.7과 0.9사이의 값을 보여주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	요인							
관리역량	c3	<b>.736</b>	.132	.203	.067	.150	.042	.022	
	c2	<b>.729</b>	.066	.226	.125	.218	.109	-.086	
	c1	<b>.729</b>	.128	.162	.032	.138	.094	.141	
	c5	<b>.727</b>	.212	.134	.112	.105	.204	.030	
	c6	<b>.691</b>	.329	-.025	.140	.175	.153	.082	
	c4	<b>.561</b>	.205	.217	.022	.114	.285	-.090	
창의성역량	d5	.105	<b>.723</b>	.049	.308	.079	.154	.064	
	d6	.218	<b>.683</b>	.037	.230	-.048	.295	.154	
	d7	.202	<b>.674</b>	-.072	.072	.277	.234	.143	
	d2	.262	<b>.670</b>	.444	-.003	.006	.024	.005	
기업가역량	d3	.374	<b>.635</b>	.245	.104	.020	.075	.121	
	d4	.113	<b>.575</b>	-.002	.208	.301	.178	.254	
	a3	.230	.079	<b>.776</b>	.111	.111	.181	.018	
	a2	.179	.037	<b>.730</b>	.189	.168	.110	.002	
	a4	.164	-.031	<b>.717</b>	-.052	.239	.090	.140	
창업만족	a1	.070	.201	<b>.696</b>	.180	-.066	-.051	-.047	
	a5	.171	.055	<b>.627</b>	.176	.349	.030	.064	
	h6	.215	.099	.150	<b>.808</b>	.004	.074	.061	
	h4	.002	.177	.120	<b>.725</b>	.137	.047	.158	
기술역량	h5	.099	.196	.079	<b>.721</b>	.114	.226	.070	
	h3	.121	.153	.253	<b>.633</b>	.082	.166	.342	
	b1	.131	-.018	.230	.088	<b>.686</b>	.114	.049	
	b3	.332	.165	.135	.014	<b>.653</b>	-.127	.034	
	b4	-.082	.175	-.054	.151	<b>.648</b>	.326	-.193	
자기효능감	b5	.151	.178	.192	.063	<b>.555</b>	.007	.205	
	b2	.361	-.054	.226	.008	<b>.540</b>	.116	.138	
	f2	.114	.299	.164	.197	.032	<b>.729</b>	.058	
	f4	.222	.096	-.017	.192	.355	<b>.681</b>	.162	
창업성공	f3	.217	.298	.123	-.074	.216	<b>.672</b>	.260	
	f5	.332	.112	.147	.232	-.095	<b>.519</b>	.052	
	f1	.308	.143	.082	.315	-.036	<b>.502</b>	.028	
	g1	.086	.146	-.027	.221	.143	.144	<b>.807</b>	
g2	-.055	.285	.123	.237	.023	.136	<b>.782</b>		

고유값	4.222	3.43	3.334	2.848	2.704	2.662	1.813
설명분산	12.793	10.395	10.103	8.631	8.194	8.067	5.494
누적분산	12.793	23.188	33.291	41.922	50.116	58.183	63.676
Cronbach's $\alpha$	0.873	0.855	0.831	0.815	0.731	0.817	0.772
KMO=.876,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3124.188(p=.000)							

### 4.3 상관관계 분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피어슨 상관관계수 값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의 유의성과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4>에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수 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변수 중 기업가

역량의 평균값이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변수는 창업성공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우선 독립변수인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은 종속변수인 창업성공, 창업만족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성공과 창업만족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창의역량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 역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관리역량과 창의역량과 0.6에 가까운 상관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성별	1.4171	.49441	1											
2.연령	3.0267	.79266	-.001	1										
3.학력	2.7861	.73119	.025	-.111	1									
4.전공	3.8128	2.26052	<b>.152*</b>	.090	<b>-.294**</b>	1								
5.직장경험	1.1390	.34691	-.089	-.053	.097	<b>-.172*</b>	1							
6.기업가역량	3.7797	.60554	-.072	-.073	.097	<b>-.165*</b>	.019	1						
7.기술역량	3.6684	.47431	-.104	-.005	-.004	-.017	.001	<b>.453**</b>	1					
8.관리역량	3.5722	.58428	-.030	.002	.028	-.099	.056	<b>.465**</b>	<b>.483**</b>	1				
9.창의역량	3.4412	.63954	-.033	-.041	.019	-.095	.065	<b>.365**</b>	<b>.384**</b>	<b>.559**</b>	1			
10.자기효능감	3.5594	.55499	.015	.027	.016	-.109	-.004	<b>.356**</b>	<b>.410**</b>	<b>.588**</b>	<b>.596**</b>	1		
11.창업성공	3.0241	.88336	-.023	<b>-.185*</b>	<b>.145*</b>	.010	.007	<b>.183*</b>	<b>.241**</b>	<b>.193**</b>	<b>.443**</b>	<b>.380**</b>	1	
12.창업만족	3.7313	.62135	.082	-.048	.086	-.055	.018	<b>.396**</b>	<b>.300**</b>	<b>.359**</b>	<b>.490**</b>	<b>.491**</b>	<b>.476**</b>	1

\*  $p < .05$ , \*\*  $p < .01$

### 4.4 가설검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추론검정을 위해 بوت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회귀분석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총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고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동일하고 종속변수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가설 1의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가역량 중 기업가역량은 1단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성공에 미치

는 총효과가 유의하나(회귀계수  $\beta = .171$ ,  $t = 2.359$ )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한 결과인 3단계에서 직접효과( $\beta = .035$ ,  $t = .480$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관계는 완전매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두 번째 하위변수인 기술 역량을 살펴보면 기업가 역량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 $\beta = .241$ ,  $t = 3.411$ )는 유의하나 직접효과( $\beta = .091$ ,  $t = 1.248$ )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술역량 역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완전매개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하위변수인 관리 역량은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가  $\beta = .198$ ( $t = 2.773$ )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beta = -.053$ ( $t = -.642$ )로 감소하여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역량도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성공에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창업가역량인 창의역량은 총효과가  $\beta = .445$ ( $t = 6.865$ )로 유의하고, 직접효과 역시  $\beta = .324$ ( $t = 4.068$ )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이후 붓

스트랩 기법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가설 1은 창업가 역량 중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의역량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5> 가설 1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통제 변수	성별	-.030	-.411	.052	.737	-.050	-.738
	연령	-.166	-2.308	.055	.787	-.188	-2.794
	학력	.141	1.867	-.035	-.480	.154	2.199
	전공	.099	1.279	-.076	-1.009	.128	1.776
	직장경험	-.005	-.064	-.013	-.180	.000	.004
기업가역량	.171	2.359	.355	5.029	.035	.480	
창업자기효능감					.385	5.399	
F값(p값)	2.760(.014)		4.733(.000)		6.901(.000)		
R <sup>2</sup>	.084		.136		.213		
adj.R <sup>2</sup>	.054		.107		.182		
통제 변수	성별	-.014	-.195	.076	1.110	-.041	-.611
	연령	-.174	-2.465	.038	.555	-.188	-2.818
	학력	.150	2.028	-.016	-.219	.156	2.234
	전공	.075	1.002	-.124	-1.719	.120	1.679
	직장경험	-.006	-.077	-.015	-.224	.000	.000
기술역량	.241	3.411	.416	6.154	.091	1.248	
창업자기효능감					.359	4.905	
F	3.832(.001)		6.861(.000)		7.141(.000)		
R <sup>2</sup>	.113		.186		.218		
adj.R <sup>2</sup>	.084		.159		.188		
통제 변수	성별	-.037	-.507	.040	.662	-.054	-.798
	연령	-.178	-2.490	.028	.471	-.190	-2.845
	학력	.150	2.004	-.016	-.247	.157	2.239
	전공	.093	1.216	-.072	-1.111	.124	1.725
	직장경험	-.016	-.217	-.043	-.698	.003	.038
관리역량	.198	2.773	.585	9.707	-.053	-.642	
창업자기효능감					.428	5.197	
F	3.136(.006)		16.395(.000)		6.934(.000)		
R <sup>2</sup>	.095		.353		.213		
adj.R <sup>2</sup>	.064		.332		.183		
통제 변수	성별	-.033	-.496	.042	.690	-.041	-.634
	연령	-.161	-2.480	.055	.913	-.173	-2.686
	학력	.156	2.294	-.008	-.126	.158	2.353
	전공	.113	1.627	-.074	-1.161	.128	1.866
	직장경험	-.030	-.449	-.048	-.798	-.020	-.303
창의역량	.445	6.865	.596	9.973	.324	4.068	
창업자기효능감					.204	2.558	
F	10.098(.000)		17.281(.000)		9.857(.000)		
R <sup>2</sup>	.252		.365		.278		
adj.R <sup>2</sup>	.227		.344		.250		

다음은 가설 2의 검증결과이다. 가설 2는 창업가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창업가 역량의 네 가지 하위변수 별로 종속변수인 창업만족

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변수인 기업가역량은 1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가  $\beta=.400(t=5.784)$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 역시 3단계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beta=.257(t=3.805)$ 로 유의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위변수인 기술역량은 총효과는  $\beta=.312(t=4.419)$ 로 유의하나, 직접효과는  $\beta=.129(t=1.832)$ 로 감소하였고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완전매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리역량 역시 기술역량과 마찬가지로 창업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창업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전체효과는  $\beta=.359(t=5.172)$ 로 유의한 값이나 3단계의 직접효과는  $\beta=.107(t=1.349)$ 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창의역량은 직접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총효과는  $\beta=.492(t=7.594)$ 로 유의한 값이며 직접효과는  $\beta=.307(t=3.967)$ 로 마찬가지로 유의하다. 다만 직접효과의 회귀계수 값이 총효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값이 유의한지는 후술하는 붓스트랩 기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가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하위변수별로 차이가 있다. 기업가역량과 창의역량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더하여 붓스트랩 검사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붓스트랩 방법에서는 매개효과계수의 붓스트랩 신뢰구간(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이형권, 2015). 붓스트랩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의 신뢰구간에서 구한 상한, 하한 값을 제시하였다. 가설 1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독립변수 중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에서 각각 붓스트랩 상한, 하한 값의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창의역량의 경우 붓스트랩 값을 보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총효과(LLCI=.4330, ULCI=.7921)와 직접효과(LLCI=.2430, ULCI=.6857)의 경우 값이 유의하나 매개효과의 경우에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접효과의 회귀계수 값이 .324로 총효과의 .44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의역량은 창업성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설 1은 세부가설 1-1, 1-2, 1-3은 지지되었고 1-4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가설 1은 부분지지 되었다.

가설 2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하위변수에서 모두 붓스트랩 상

한, 하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결론을 내리자면 기업가역량과 창의역량은 부분매개효과,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검증결과를 제시하면 가설 2는 세부가설 4가지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6> 가설 2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총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 변수	성별	.110	1.591	.052	.737	.089	1.407
	연령	-.014	-.205	.055	.787	-.036	-.578
	학력	.044	.620	-.035	-.480	.059	.895
	전공	.012	.159	-.076	-1.009	.042	.626
	직장경험	.018	.256	-.013	-.180	.023	.361
기업가역량	.400	5.784	.355	5.029	.257	3.805	
창업자기효능감					.403	6.045	
F	6.202(.000)		4.733(.000)		11.586(.000)		
R <sup>2</sup>	.171		.136		.312		
adj. R <sup>2</sup>	.144		.107		.285		
성별	.121	1.686	.076	1.110	.088	1.336	
연령	-.035	-.488	.038	.555	-.051	-.791	
학력	.066	.894	-.016	-.219	.073	1.084	
전공	-.043	-.575	-.124	-1.719	.011	.160	
직장경험	.013	.185	-.015	-.224	.020	.307	
기술역량	.312	4.419	.416	6.154	.129	1.832	
창업자기효능감					.438	6.191	
F	3.840(.001)		6.861(.000)		9.450(.000)		
R <sup>2</sup>	.113		.186		.270		
adj. R <sup>2</sup>	.084		.159		.241		
성별	.093	1.326	.040	.662	.076	1.158	
연령	-.040	-.582	.028	.471	-.053	-.814	
학력	.066	.908	-.016	-.247	.073	1.075	
전공	-.011	-.154	-.072	-1.111	.019	.279	
직장경험	-.004	-.057	-.043	-.698	.014	.219	
관리역량	.359	5.172	.585	9.707	.107	1.349	
창업자기효능감					.429	5.383	
F	5.065(.000)		16.395(.000)		9.155(.000)		
R <sup>2</sup>	.144		.353		.264		
adj. R <sup>2</sup>	.116		.332		.235		
성별	.096	1.463	.042	.690	.083	1.315	
연령	-.020	-.313	.055	.913	-.037	-.595	
학력	.073	1.070	-.008	-.126	.075	1.150	
전공	-.002	-.031	-.074	-1.161	.021	.311	
직장경험	-.014	-.208	-.048	-.798	.001	.020	
창의역량	.492	7.594	.596	9.973	.307	3.967	
창업자기효능감					.309	3.980	
F	10.309(.000)		17.281(.000)		11.828(.000)		
R <sup>2</sup>	.256		.365		.316		
adj. R <sup>2</sup>	.231		.344		.290		

<표 7>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بوت스트래핑 결과

변수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기업가역량	.1874	.0679	.0697	.3310
기술역량	.2584	.0788	.1136	.4176
관리역량	.3630	.0975	.1867	.5689
창의역량	.1482	.0842	-.0105	.3186
기업가역량	.1465	.0515	.0570	.2594
기술역량	.2378	.0593	.1345	.3669
관리역량	.2682	.0708	.1505	.4300
창의역량	.1789	.0512	.0886	.2911

<표 8> 가설검증 결과

가설		매개효과	검증결과
1-1	기업가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2	기술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3	관리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4	창의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없음	기각
2-1	기업가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부분매개	채택
2-2	기술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완전매개	채택
2-3	관리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완전매개	채택
2-4	창의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부분매개	채택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들의 가지는 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과인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김미숙·김영구, 2012; 양준환, 2014; 진주형·박병진, 2014; 유승욱, 2018; 권인수 외, 2019). 이론적으로 제시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창업의도가 아닌 창업성공과로 설정하고 창업가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에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가 주목하는 청년층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 변수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Yusuff et al., 2016; Tehseen & Ramayah, 2015; Mitchelmore & Rowley, 2010). 창업성과는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두 변수에서 검증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창업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심용호 외, 2015; 유재은·최종우, 2019) 창업성공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창의역량을 제외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



로 창업성공에 대한 창업가역량의 영향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자기효능감 연구에서 확장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일부 이론적 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개인적 특성과 창업성공과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Newman et al., 2019). 그러한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주관적 창업성과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가설로 설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성공과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가 연구에 있어서 창업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창업가 역량은 위험성 감수, 불확실성 인내, 창의성, 리더십 등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특성이 특정 분야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열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을 밝히게 되었다.

둘째,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 중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직접적으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을 높이지 못하고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창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론적 확장 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다른 두 가지 역량에 비해 조직 내부의 자원들을 다루는 역량의 성격을 가진다(권기환 외, 2010).

기술역량은 기술인력 확보와 활용능력,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가리키며, 관리역량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감독·설득·지도하고 권한위임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자원을 다루는 역량은 주로 창업 이전의 직장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창업가, 혹은 예비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 및 관리역량을 육성하는 기업의 제도와 문화를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청년들을 사내벤처 등을 통해 사내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기술 및 관리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공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oper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선행요인도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업의 전략지향성과 기업가적 문화가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창업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업가적 특성을 흡수하여 기술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창업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지향성과 문화를 통해 구성원의 창업자기효능감을 자극하고 창업성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역량은 창업성공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은 다른 세부역량요인에 비해 독립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창의성이 주관적 창업성공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 창의적인 기업가들일수록 전문적 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서(Paige & Littrell, 2002) 스스로 사업을 구축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Carsrud & Brannback, 2011; Feldman & Bolino, 2000; Paige & Littrell, 2002). 또한 창의성이 높은 기업가일수록 재무적 성공보다는 창업가로서 느끼는 행복과 경력개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심리적 행복, 여가시간,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Carree & Verheul, 2012; Parasuraman et al., 1996; Couningham et al., 2008). 따라서 창의적 역량은 자기효능감과 관계보다 직접적으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창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결과이다. 창의성은 타고난 특성이기도 하나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길러지고 개발될 수 있는 특성임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권기환·최종인, 2014). 따라서 청년들은 성공적인 창업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창의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 정부지원, 네트워크 등의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창업자 본인이 가진 사업에 시도하는 창의적 사고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가운데 창업가적 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을 독립 및 매개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변수만으로 창업성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교육, 정부지원 등의 외부효과변수의 영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창업가들의 여건 상,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받아 창업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업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외부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창업성과 변수의 측정상의 한계가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같이 공개된 재무적 성과를 도출하여 비교하기에는 표본 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재무정보의 직접 기입을 요청할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변수를 인지적 성과변수로 측정하였다. 향후 기업성공과 객관적 자료로 측정된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경우, 청년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객관적 창업성공과의 관계를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표본의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

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표본조사를 토대로 확장된 연구를 실시하여 국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성과와 창업만족을 설명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산업구조와 직업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기업에게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틈새시장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길지 않은 직장 경험을 토대로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창업가들의 활약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 즉 창업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성적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중요한 매커니즘임을 밝혔다. 청년들은 직장생활 및 창업 과정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다음의 창업시도에서 활용할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 대학을 포함한 교육훈련기관, 기업, 지원기관, 가족과 지인 등은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험과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 혁신적인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권기환·이종현·권재현(2010). 내부 자원과 역량이 벤처기업의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35(3), 167-194.

권기환·최종인(2014). 가치혁신 문화가 개인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129-146.

권인수·김기홍·서문교(2019).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안정지향성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4(4), 91-100.

김경은·주병철(2018). 청년창업자의 동기요인이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1(5), 1621-1640.

김동규·김중진·김한준·최영순·최재현(2017).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김량형·김응규(2019). 대학생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4(2), 57-83.

김명숙·박태경(2019). 창업교육만족도와 가족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34(3), 103-123.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15(4), 61-84.

김상표·변충규·하환호(2017).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6), 79-88.

김수현·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6), 2677-2687.

김은성·리상섭(2020). 창업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창업가 개인역량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3(1), 61-97

김진한·조진형·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김진홍·김영수(2019). 창업교육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교육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561-582.

김향덕·이철규(2018a). 벤처기업의 외부역력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0(3), 77-96.

김향덕·이철규(2018b). 청년창업자 특성과 창업불안과의 관계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2), 1-24.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27(5), 1-30.

방중혁·박상문·신중경(2014). 예비 청년창업가들의 핵심성공요인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247-254.

서명길(2018).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 창업준비도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영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선량·허철무(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송은실·이성근(2012).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상북도 청년 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177-193.

심용호·김윤근·김서균(2015). 기술 창업자와 창업 조력자 간 창업 성공요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2), 43-57.

안기돈·이택구(2018). 미국과 한국의 대학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한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33(2), 401-422.

안태욱·강태원(2017). 창업가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20(5), 81-89.

안태욱·한동화·강태원(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65-77.

양준환(2015).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0(1), 25-45.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유봉호·김수현(2015). 청년창업자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8(4), 1087-1103.

유승욱(2018). 대학생의 자기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4), 49-72.

유재은·최중우(2019).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 학회지*, 23(4), 139-171.
- 윤종록·김형철(2009).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차별화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생산성논집*, 23(4), 401-427.
- 이광수·이용진(2018). 중소기업수준지역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창업자효능감 및 창업의향간의 관계연구: 연변조선족자치주 대학생들의 실증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16(3), 123-145.
-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철빈(2017).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벤처창업연구*, 12(3), 53-63.
- 이정란·장규순(2018).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43-60.
- 이지안·안영식(201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벤처창업연구*, 13(4), 197-209.
- 이창구·서영욱(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 182-207.
- 이혜영·김진수(2019).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4(5), 13-24.
- 전타식(2019). 예비청년창업자의 감성지능이 창의성, 창업효능감, 창업성공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0(6), 19-33.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1), 85-110.
- 정대용·침희·한관섭(2012).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 창출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 중 기업가의 특성 비교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5), 2079-2086.
-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 최세경·곽규태(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세종: 중소기업연구원.
- Ahmad, N. H., Ramayah, T., Wilson, C., & Kummerow, L.(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business success relationship contingent upon business environment? A study of Malaysia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3), 182-203.
- Ahn, T. U., & Kang, T. W.(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on the Employment Volit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0(5), 81-89.
- Ahn, T. U., Han, D. H., & Kang, T. W.(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73-83.
- Albiol-Sánchez, J.(2016). The Relevance of Business Exit for Future Entrepreneurial Activity. *Strategic Change*, 25(2), 151-169.
- An, G. D., & Lee, T. K.(2018). A Study of Facilitating Korean Youth Startup by Analyzing the U.S. and Korean University Startup Eco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2), 401-422.
- Austin, M. J., & Nauta, M. M.(2016). Entrepreneurial role-model exposure, self-efficacy, and women's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3(3), 260-272.
- Bagheri, A., & Pihie, Z. A. L.(2014).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Implications for vocational guida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4(3), 255-273.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H. Freeman.
- Bandura, A.(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5(1), 307-337.
- Bang, J. H., Park, S. M., & Shin, J. K.(2014). Exploratory study on Perceived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Young Entrepreneurs in the Early Startup St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247-254.
-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 Cardon, M. S., & Kirk, C. P.(2015). Entrepreneurial passion as mediator of the self-efficacy to persistence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5), 1027-1050.
- Carree, M. A., & Verheul, I.(2012). What makes entrepreneurs happ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mong found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71-387.
- Carsrud, A., & Brännback, M.(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assar, G., & Friedman, H.(2009). Does self-efficacy affect entrepreneurial investment?.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3(3), 241-260.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77-89.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i, S. K., & Gwak, G. T.(2017). *A Study on Role Improvement and Performance of Youth Startup Promotion Program*. Sejong: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Chung, D. Y., & Chae, Y. H.(2016).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1), 85-110.
- Chung, D. Y., Zhan, X., & Han, K. S.(2012).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n

- Entrepreneurial Outcome and Expect Growth Intentions: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China Entrepreneu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5), 2079-2086.
- Cooper, D., Peake, W., & Watson, W.(2016). Seizing Opportunities: The Moderating Role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portunity: Seeking and Innovation Efficacy in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4(4), 1038-1058.
- Dalborg, C., & Wincent, J.(2015). The idea is not enough: The role of self-efficacy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ll entrepreneurship and founder passion—a research not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3(8), 974-984.
- Farashah, A. D.(2015). The effects of demographic, cognitive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oward a socio-cognitive model of entrepreneurial career.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13(4), 452-476.
- Feldman, D. C., & Bolino, M. C.(2000).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53-68.
- Hallak, R., Assaker, G., & Lee, C.(2015). Tourism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The effects of place identity, self-efficacy, and gende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4(1), 36-51.
- Hallak, R., Brown, G., & Lindsay, N. J.(2012). The Place Identity-Performance relationship among tourism entrepreneu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Tourism Management*, 33(1), 143-154.
- Hallak, R., Lindsay, N. J., & Brown, G.(2011). Examining the rol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SMTE performance. *Tourism Analysis*, 16(5), 583-599.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ockerts, K.(2017). Determinants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05-130.
- Jeon, T. S.(2019). The Effects of Young entrepreneu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reativity, Entrepreneurial Efficacy, Possibility of Entrepreneurial Success. *The e-Business Studies*, 20(6), 19-33.
- Jin, J. H., & Park, B. J.(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 Kim J. H., & Kim, Y. S.(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usiness will through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elf-efficiency, which is based on Social Capital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trolling Effect of Mentorin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4(6), 561-582.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5(4), 61-84.
- Kim, D. K. , Kim, C. J., Kim, H. J., Choi, Y. S., & Choi, J. H.(2017). *Future Job Prospec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KEIS.
- Kim, E. S., & Lee, S. S.(2020). A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tart-up Competencies: Focused on Individual Competencies of Start-up Founder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3(1), 61-97.
- Kim, H. C., Lim, A. R.,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8(2), 27-58.
- Kim, H. D., & Lee, C. G.(2018a). The Effect of External Cooperation of Venture Companies on Corporate Grow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echnical Competenc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0(3), 77-96.
- Kim, H. D., & Lee, C. G.(2018b).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You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24.
- Kim, J. H., Cho, J. H., & Lee, S. J.(2020).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s on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43(1), 132-142.
- Kim, K. E., & Ju, B. C.(2018). The Effects on the Motivation Factor of Young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ear of Start-up Failur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1(5), 1621-1640.
- Kim, M. S., & Park, T. K.(20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4(3), 103-123.
- Kim, R. H., & Kim, E. K.(2019). The Impa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lobal Mindset.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2), 57-83.
- Kim, S. H., & Yoo, B. H.(2013). An Effects of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77-2687.
- Kim, S. P., Byun, C. G., & Ha, H. H.(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im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79-88.
- Kwon, I. S., Kim, K H., & Seo, M. K.(2019).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the Start-Up Intention: The

-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e Effect of Security Compet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91-100.
- Kwon, K. H., Lee, J. H., & Kwon, J. H.(2010). Impact of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on Performance of Venture Internationalization. *Korea Trade Review*, 35(3), 167-194.
- Lee, C. G., & Seo, Y. W.(2018).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ntrepreneurship in Young Adul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Program Participants in Daeje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 182-207.
- Lee, H. Y., & Kim J. S.(2019).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 Meta-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3-24.
- Lee, J. R., & Jang, K. S.(2018).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43-60.
- Lee, S. H.,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 Lee, J. A., & Ahn, Y. S.(2018).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97-209.
- Li, G. Z., & Li, Y. Z.(2018). Achievement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Case of Minority Area's College Students in China.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16(3), 123-145.
- McGee, J. E., & Peterson, M.(2019). The long-term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3), 720-737.
- Miao, C., Qian, S., & Ma, D.(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a meta-analysis of main and moderator effec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5(1), 87-107.
- Minai, M. S., Uddin, M. M., & Ibrahim, Y.(2014). The pitfalls in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research: A holistic view. *Asian Social Science*, 10(6), 533-544.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92-111.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l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2019), 403-419.
- Paige, R. C., & Littrell, M. A.(2002). Craft retailers' criteria for success and associated business strateg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0(4), 314-331.
- Parasuraman, S., Purohit, Y. S., Godshalk, V. M., & Beutell, N. J.(1996). Work and family variables,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75-300.
- Park, J. H., Park, M. S., & Kim, D. Y.(2012).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Policies of Fostering the Youth Start-up Firms within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7(5), 1-30.
- Runco, M. A.(2004). *Everyone has creative potential*. In R. J. Sternberg, E. L. Grigorenko, & J. L. Singer (Eds.),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p. 21-3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o, M. G.(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Start-up Owners'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ation on Start-up Succes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 Shan, L., & Heo, C. M.(2019).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7-137.
- Sim, Y. H., Gil, U. G., & Kim, S. K.(2015). Study on the Perception Gap between Technology Based Entrepreneurs and Startup Facilitators about Success Factors for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43-57.
- Song, E. S., & Lee, S. K.(2012). A Study on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Focusing on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4(3), 177-193.
- Sozuer, A., Altuntas, G., & Semercioz, F.(2017).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of small firms and their export market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1(3), 365-382.
- Tehseen, S., & Ramayah, T.(2015).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MEs business success: The contingent role of external integration.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1), 50-50.
- Trevelyan, R.(2011). Selfregulation and effort in entrepreneurial task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7(1), 39-63.
- Uygur, U., & Kim, S. M.(2016). Evolution of entrepreneurial judgment with venture-specific experience.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0(2), 169-193.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ang, J. H.(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5-45.
- Yoo, B. H.(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 B. H., & Kim, S. H.(2015). An Effects of Youth Founder's Self Leadership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4), 1087-1103.
- Yoo, S. O.(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construal on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4), 49-72.
- You, J. E., & Choi, J. W.(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Norms of Young Entrepreneurs on the Start-u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tart-up Educ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3(4), 139-171.
- Youn, J. R., & Kim, H. C.(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Differentiation Strategy. *Productivity Review*, 23(4), 401-427.
- Yusuff, Y. Z., Bakar, A. A., & Ahmad, S.(2016).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mong women entrepreneurs. *I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Management*, 117.

## Impact of Youth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the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through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Choi, Su Heyong\*\*

Kang, Hee kyung\*\*\*

Lee, Dae Shik\*\*\*\*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a non-face-to-face society are expected to have a direct impact on job problems. In line with this phenomenon, the govern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re coping with job problems through the start-up support policy while at the same time inducing the creation of innovative companies. In particular, youth start-up support can be expected not only to compensate for market failures, but also to promote high-growth start-ups. Based on thi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e competency of young entrepreneu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thei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ir impact on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the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model were derived by sett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 a mediating variable after review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ain elements of start-up competency of young start-up entrepreneurs and start-up performance. The Youth Entrepreneurship Competency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Technical Competencies, Management Competencies, and Creative Competencies, and the hypothesis was that ea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urvey was conducted on young entrepreneurs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for empirical research,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mpetency of young entrepreneu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affects the success of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etencies, and both technical and management competencies can be seen through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o enhance the success of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Entrepreneurial competency was fully mediated to start-up success and partially mediated to start-up satisfaction. In the case of creative competency, there were only direct effects on successful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Thus, seven of the eight detailed hypotheses were supported and one was rejec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Words: Young entrepreneurer, entrepreneurial capacity, technology capacity, management capacity, creative capacit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tart-up satisfaction, start-up success, start-up performan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pire@pusan.ac.kr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rachelkang@pusan.ac.kr

\*\*\*\* Co-Author, Professor, Dep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daslee@pusan.ac.kr